

# 전북 대도약 위해 '구슬땀'

### 최용범 행정부지사, 기재부 핵심인사 방문 활동

전북도는(도지사 송하진) 기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 등 성공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道政)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폭염과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24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행정예산심의관 등 핵심인사를 만나서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20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최 부지사가 정부 재정의 투자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의 씨앗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 양총무 경제예산심의관, 류상민 복지예산심의관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임기근 행정예산심의관, 안도걸 예산총괄심

의관을 연이어 만나 건의했다.

최 부지사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지원' 90억원과 식품-전자-ICT농기계-미생물-철단농업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한 가정편의식(FMR)의 성장하는 시장추세와 기업 기술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구축비' 10억원 필요성과,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5억원 등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멋스런 전북 역사·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류 1번지 조

성을 위해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을 발굴, 보존·정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국학기관으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설계용역비 5억원과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5억원 등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2023새만금세계캠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비' 125억원, '세계캠버리대회 기반시설차비' 35억원 등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앞으로 지휘부가 잇달아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하고, 아울러, 지역국회의원실에서 수시로 방문 설명하는 등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홀트립 없이 전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비 긴급 대책 회의

일본 수출규제 확대 대비 긴급 대책 회의가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원택 정무부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전북도,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로 생활 안정화 지원

전북도는 지난 19일부터 내린 장맛비와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해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피해신고를 한 경우 단 한 번의 신고 접수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부터 각 피해주민에 해당하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용자와 같은 15개 간접지원 항목에 대하여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19일부터 시작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피해자의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에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재난지원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와 투자 협약 체결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금속가공 및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 등 5개의 기업들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산업단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4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운동동 군산시 부시장,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조석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과 유망 중소·중견기업인 다스코(주), 솔에코(주), (유)참플랜트, (주)케이제이스틸, 아이코톤(주)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5개 기업은 새만금산업단지 189,000㎡ 부지에 총 886억원을 투자하여 25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군산시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인프라 조성과 부지 공급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시는 최근 전기차 관련 기업의 투자협약이 이어지면서 전기차 및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속가공, 바이오설비, 친환경 원편 부직포 생산 등 유망 중

소기업들로 새만금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운동동 군산시 부시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며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새만금에 동지를 둔 기업들의 성공이 곧 새만금의 성공이라는 모토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북도, 익산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실시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합동으로 '전북지역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24일 익산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는 지역 현장간담회로 주민 및 기업이 겪고 있는 제약과 고충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간담회에는 임택진 규제개혁신문고 과장을 비롯해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 14개 시·군의 규제개혁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의료폐기물 기준 완화' 등 8개 시·군의 주요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해결방안 및 당위성을 강조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 기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간담회의 참석자 임택진 규제개혁신문고 과장은 "규제개혁이 많은 이해관계의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규제 해소를 목표로 현장의 애로에 집중하고 개선의지를 모을 때이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규제대로의 기업인, 지자체의 담당자가 고충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늘의 건의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이서묘포장, 전북대도약 위한 랜드마크로!

### 전북연구원, "새로운 기능 도입해 도민 위한 혁신공간으로 재생해야"

묘목의 생산과 공급, 나무 종자 및 병해충 시험 연구 등을 수행하던 이서묘포장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체험형 애완식물 육묘장이나 전래동화 테마파크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전북대도약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재생하여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서묘포장은 도의 정책 결정과 이용이 자유로운 도유지로서 혁신도시와 전북도청에서 가깝고 호남고속도로와 1번국도 뿐만 아니라 2023년 새만금 세계캠버리대회에 맞추어 근거리에서 새만금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어 광역접근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묘포장의 뛰어난 입지적 잠재력이 심분 발휘된 전북대도약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4일 이서묘포장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를 통해 충분한 장점과 잠재력을 가진 이서묘포장을 혁신공간으로 재생하여 묘

포장이 가진 자원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기능을 도입해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내발적 성장 기반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기능을 도입해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창출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일본의 '장난감왕국', 네델란드의 '헬스 에이징 캠퍼스' 등의 사례로부터, 묘포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능을 확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의 도입, 또는 기능을 융복합하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기능을 확대하여 체험형 애완식물 육묘장이나 도심형 힐링 공원을 조성하거나 사회적 수요, 도민 수요,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해 전래동화 테마파크, K-Book City, 장수복지의료 클러스터를 제안했으며, 기능을 융복합하여 숲에서 전개되는 전래동화 테마 공간, 책과 함께 하는 자연속 힐링 공간, 자연테라피를 통한 건강·장수 치유 공간으로 조성

할 것을 제안했다.

오병록 부연구위원(지역개발연구부)은 "연구원에서 발굴한 국책사업을 묘포장이 갖는 장점과 입지 특성을 살려 사업 부지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서묘포장 뿐만 아니라 지형적 특성 등의 이유로 저활용되고 있는 도내 국공유 일 반재산에 대해서도 상호 연계하여 도민 이용 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서묘포장 활용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의 농생명 관련 연구 성과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 인쇄 기술과 서적 자료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역량을 이용한 협력은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자본력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가진 민간 활력의 참여를 통해 도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적 이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